

회사운영 잘해야 됩니다. 운영 못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도, 따르는 사람도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많이 번다고 하는 데는 가지 마십시오. 돈이 갑자기 벌립니까?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점진적으로 개구리 뛰듯이 하나씩 하나씩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뛰어나갑니다.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야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지도할 때 많이 생각합니다. 보통으로 안 합니다. 내가 성경 2천 번 읽었어도 지금도 또 봅니다. 전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봐야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난다고 해서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피가 멈춰서 살았습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볼도 일반인이 차는 것 보다 전문가가 차야 못 따라 잡니다.

의식 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혼자 가는 길 힘들면 단체로 갈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 보면 혼자의식을 많이 합니다. 항상 심리적인 것이 있어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와 같이 어울려서 가면 괜찮습니다. 볼을 몰고 갈 때 혼자가면 힘들고 레프트윙 라이트윙 같이 몰고 가면서 패스하면 안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30년을 청중 속에서 했으니까요. 애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도자도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애들 잡기가 힘듭니다. 젊은 애들은 젊은애들 교육팀을 파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인도해다가 일 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안 통하니까 너희들도 밑의 사람, 그 또래들은 하기 힘들니까 그 또래들을 교역자로 세워서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임무 맡겼다고 좋아합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사람들은 위에서 머리가 되어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따르는 사람이 낙심하면 지도자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걱정하지마세요. 내가 하나님 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힘이 나십니다.우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걱정말아요. 우리 고생해도 몸 최고로 좋아요.’ 할 때 최고로 좋아하셨습니다. 걱정 안 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과감하게 해나가면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 한없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분에 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나는 것이 아니고. 옷 좋은 것 입고 나는 사람은 옷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정신이 나야 정신 가지고 움직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정신가지고 육신을 다스리며 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신입생들 잘 지도해야 합니다. 애기는 잘 낳는데 사람들이 기르지를 못합니다. 애기를 낳는 것처럼 전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20대 때 1년에 만 명씩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니까 각 교회로 천주교로 가라하고 감리교로 가라하고 성결교로 가라하고 장로교로 다 가라고 했습니다. 기르질 못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잘 길러야 합니다